



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주 제: | “겸손한 마음” | “대림 제 4 주일” | 2008년 12월 21일 |
| 복음 묵상: | [루카 1,26-38] | [2 사무 7,1-5.8 나-12.14 그.16] | [로마 16,25-27] |

대림 4 주입니다. 제대 앞에는 보라색, 연보라색, 분홍색, 흰색 초가 모두 켜져 있습니다. 이제 초는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고, 독서와 복음도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우리는 나를 바라보았고, 또 주님께 대한 사랑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였습니다. 이러한 작업들이 바로 탄생하실 예수님의 자리인 구유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우리는 성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.

오늘 복음에서는, ‘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구유’가 어디인지를 성모님을 통해 분명히 알려줍니다.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. 천사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지닌 마리아에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전해줍니다. 마리아도 그 사실을 처음에는 주저합니다. “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?..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” 내 생각으로, 내 뜻으로 이해할 때 “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”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, 겸손한 마음을 지닌 마리아는 “보십시오,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.”(루카 1,38)라고 말하며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합니다.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탄생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.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과 나의 뜻보다는 주님을 뜻을 찾는 마음, 또한 내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는 마음 안에서 잉태되시고, 탄생하심을 오늘 복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. (수원 황용구 신부님 강론에서)

1.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

- 성탄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**총 연습을 월요일(12/22) 저녁 7 시에** 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.
- 그동안 교실 문제로 부족한 연습 시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조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주일 (14 일, 21 일) 연습시간 연장: 3:00 시
- 신계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: 가족 여행떠나셨습니다. 일요일은 참석하지 못합니다.
-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. 1-2 주의 여정으로 LA 에 가십니다.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.
-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; 11/25 일 2 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.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..

공지 사항:

축신임 단장

2009년부터 2년간 성심 성가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단장님으로 **최주남 에로니모 형제님**이 지난 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. 축하드리며 성가대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.

1. **소식지**에 그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.
2. **화답송**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오니 꼭 해 보시고...
3. **성탄 특송곡**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.
<http://www.sjkoreancatholic.org/node/10824>
4. **요셉회 송년파티**에 성심 성가대가 초대받았습니다.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
장소: 본당. 일 시: 12월 27 일

+ 복음 [마르 1,1-8]



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 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"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, 기뻐하여라.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" 하고 인사하였다.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 그러자 천사는 다시 "두려워하지 말라. 마리아,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.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.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" 하고 일러 주었다.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"이 몸은 처녀입니다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"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. "성령이 너에게 내려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.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.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,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.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."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"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.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" 하고 대답하였다.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 갔다.



♡ 내몸이...♡



그대의 몸을 지니고 있을 뿐
지상에서 그리스도는 더이상 몸이 없습니다.
그대의 손과 발을 지니고 있을 뿐
그리스도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.
그대의 두 눈은 이 세상을 자비로 바라보시는
바로 그분의 눈이요,
그대의 두 발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
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분의 발이며
그대의 두 손은
세상을 강복하시려 펼쳐드신 바로 그분의 손입니다.
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더이상 몸이 없습니다.
그대의 몸이 바로 그분의 몸이므로...
(아빌라의 대 테레사)

“이제 내몸이 바로 그분의 몸이니...”

오늘의 말씀 사탕: “항상 기뻐하십시오. 늘 기도하십시오.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.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 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. (1 데살 5,16)”